

조정장 vs 2차 랠리... 엇갈린 반도체 전망에 개미 섹법 복잡

삼전·닉스 등 반도체주 변동성 커져
AI 투자 증가세 둔화 등 보수적 전망
“일시적인 재가격화 과정” 평가도

코스피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가 확산하자 “지금 빠져 나오지 않으면 발목이 잡히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다. 시장 변동성도 극심하다. 반도체주를 비롯한 주요 기업 주식이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매수·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수·매도 호가 일시 효력 정지)가 반복되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6.15% 상승한 25만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7월들어 하루 평균 변동률은 6%가량이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최근 주가 조정을 “악세장의 시작이 아니라 가격과 수급이 균형을 다시 찾는 재가격화(Repricing)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시가총액 2위 SK하이닉스 역시 물러코스터를 탔다. SK하이닉스는 이날 4.08% (183만6000원) 반등했다. SK하이닉스의 이달 하루 평균 변동성은 6.95%였다.

◆반도체주 불안과 기대 사이

해외투자은행(IB)과 증권사들의 반도체 전망은 제각각이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메모리 가격 상승률 둔화와 재고 정상



Chat GPT로 생성한 관련 이미지.

화, 실적 추정치 상향 사이클 마무리 가능성은 이유로 메모리 업종에 대한 눈높이를 낮췄다. AI 투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증가율이 둔화될 경우 메모리 업체들의 실적 개선 속도도 둔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내 증권사들도 일부 보수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BNK투자증권은 지난 8일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185만원으로 유지했다.

이는 현재 주가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사실상 매도에 가까운 시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AI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eSSD)는 여전히 공급 부족이지만 이를 이끌었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경쟁적인 AI 인프라 투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투자 속도 조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키움증권도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기존 43만원에서 39만원으로 하향 조정했

다. 박유악키움증권 연구원은 “하반기에는 HBM4와 eSSD 시장 점유율 확대 기대와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경쟁 심화 우려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김두언 연구원은 “AI 인프라 투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단계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라며 “2027년에도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장률 둔화와 업황 하강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고 분석했다.

김동원KB증권 리서치본부장 역시 삼성전자 목표주가 60만원, SK하이닉스 목표주가 420만원을 유지하며 “2027년은 70년 반도체 역사상 가장 공급이 타이트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범용 메모리 생산능력이 HBM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실제 고객이 체감하는 메모리 공급 부족은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메타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의 AI 데이터센터 증설 계획이 이어질 경우 메모리 수요도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동원 연구원은 “이달 말 메타 실적 발표에서 2027년 AI 투자 계획이 제시된다면 AI 투자 둔화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나기 피할 곳 찾아라

전문가들은 반도체 영업이익과 수출

실적, 세계 인공지능(AI) 수요 등을 근거로 ‘매수’ 신호를 유지하고 있지만, 투자 과열을 우려하며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권유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피크아웃 및 중국발 인공지능(AI) 모델 관련 우려, 미국과 이란 간 지정학적 긴장감 등이 중첩적으로 나타난 상황”이라며 “현 상황에서는 선행 주가순자산비율(PBR) 1.3배에서 1.4배 정도가 적절한 ‘목바텀’(하단)이며 이는 코스피 지수로 치환하면 6000 포인트”라고 분석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대내외 매크로 불확실성으로 인해 증시 하방 압력이 커진 만큼, 당분간 철저하게 이익 방어가 가능한 업종을 중심으로 전략을 다변화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는 “극심한 변동성을 활용해 밸류에이션이 크게 낮아진 메모리 반도체와 기술주 가운데 투자 확신이 높은 종목을 선별적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슈아 크랩 로베코자산운용 아시아 태평양 주식운용 대표는 “지금까지는 AI 테마가 시장을 주도했지만, AI 관련 종목이 압박을 받는 국면에서는 헬스케어와 금융 등 그동안 소외됐던 업종이 부상할 것”이라고 했다.

/하정운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이찬진 “홈플러스 위법, 투명·신속 제재”

(금감원장)

MBK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조사 중
직원 피해 최소화 위해 관계기관 협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위법사항에 관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재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회생 관련 정부위원회 간담회에 출석해 그간 금감원이 진행한 제재절차를 설명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이 원장은 “MBK를 대상으로 한 현장 검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을 조사해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며, 하나증권 등도 (전단계 불안전판매 혐의로) 검사를 실시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MBK에 자본시장법 상 불건전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의무 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홈플러스 사태 국회 정부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반 혐의가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진다. MBK가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RCPS(상환전환우선주) 조건을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변경해 상환권을 포기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낮춰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결로 보인다.

또 이 원장은 “금감원은 입점업체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홈플러스 전단계 투자 피해와 관련해서도 “불완전판매 관련 조사는 사실상 끝난 상태”라며 “구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는 이번 사건을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법원 회생절차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관계기관과 함께 민생경제 영향 최소화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지속해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그간 협력업체 금융지원 7682건, 총 5조1300억원어치가 지원됐다.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보증 제공 등으로도 총 44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이 지원된 상태다.

/하정운 기자

증시 활황에 상반기 증권결제 4701조

예탁원, 전년대비 41.3% 증가

국내 증시 거래가 급증하면서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치는 증권결제 규모도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전체 증권결제 대금은 4700조원을 넘어서며 전년 동기 대비 41% 넘게 증가했다.

21일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증권결제대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증권결제대금은 총 4701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3637조1000억원)보다 29.3%, 지난해 상반기(3326조4000억원) 대비 41.3% 증가한 규모다.

이 가운데 주식결제대금은 993조5000억원으로 직전 반기(361조6000억원) 대비 174.8%, 전년 동기(239조7000억원) 대비 314.5% 급증했다. 더불어 채권결제대금은 3707조5000억원으로 직전 반기보다 13.2%, 전년 동기보다 20.1% 늘어났다.

주식시장 거래가 크게 늘면서 장내 결

제 규모도 급증했다. 상반기 장내 주식시장 결제대금은 436조3000억원으로 직전 반기보다 174.7% 증가했다. 거래대금은 1경2095조2000억원으로 156.3% 늘었으며, 차감률은 96.4%로 직전 반기(96.6%) 대비 0.2%포인트(p) 감소했다.

기관투자자 결제 규모 역시 큰 폭으로 확대됐다. 상반기 주식 기관투자자 결제 대금은 557조2000억원으로 직전 반기보다 174.8% 증가했고, 거래대금은 6207조9000억원으로 154.5% 늘었다.

반면 채권시장은 다소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장내 채권시장 결제대금은 350조5000억원으로 직전 반기보다 12.5% 감소했지만, 장외를 중심으로 한 기관투자자 채권결제대금은 3357조원으로 16.8% 증가했다. 특히 단기사채 결제대금은 1077조원으로 직전 반기보다 45.8%, 전년 동기보다 81.9% 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한화운용, 전주사무소 열고 국민연금 협력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

한화자산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사무소 개소를 통해 주요 기관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한화자산운용은 20일 전주사무소 개소식을 진행했다. 개소식에는 김중호 한화자산운용 대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한화자산운용과 국민연금 주요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전주사무소 개소는 국민연금과 보다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구축하고, 변화하는 투자환경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 마련의 의미를 갖는다. 한화자산운용은 전주사무소를 중심으로 국민연금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왼쪽부터)김중호 한화자산운용 대표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0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열린 한화자산운용 전주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자산운용

아울러 전북 지역 금융생태계의 성장과 금융산업 활성화에도 적극 동참한다.

/신하은 기자

토스증권, AI 어닝콜 이용자 60만명 돌파

서비스 범위 확대 3개월 만의 성과

토스증권은 국내기업에 대한 인공지능(AI) 어닝콜 서비스의 누적 이용자 수가 60만명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어닝콜 서비스는 기업의 실적발표 설명회에 대한 투자자 지원 서비스다.

토스증권은 “지난 4월 국내 증권업계 최초로 어닝콜 서비스 범위를 해외 기업에서 국내 기업으로 확대한 지 3개월 만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국내 어닝콜로 서비스를 처음 접한 신규 이용자만 약 20만명에 달했다. 이어 가장 많은 이용자를 기록한 기업은 삼성전자였으며 지난 1분기 실적발표에만 19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2분기 실적발표 기간에는 70여개 국내 주요 기업의 어닝콜을 제공할 계획이다.

토스증권은 국내기업 어닝콜 서비스를 위해 실시간 한국어 음성 텍스트 변환 및 요약 기술을 자체 개발해 적용해왔다.

/하정운 기자